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榮
印刷人 方又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㉑8131~9
本社直通 ㉑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禎祥見禍,
其善未熟.
至其善熟,
必受其福.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法句經>

開幕 앞두고 祝典準備 한창

開校 71周年 紀念式, 9日 體育館서

學藝·民俗·宗教祭등 多彩

白象宴 불꽃놀이도 計劃

開校 71周年紀念「東國祝典」이 9일 오전10시 체육관에서 거행되는 開校紀念式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된다。이날 기념식은 尹月下理事長, 李瑄根總長을 비롯한 가운데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열리게되는데, 이자리에서는 장기근속및 근무 敎職員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있게된다。이어 학술·藝術·民俗·宗敎祭등 다채로운 행사인「어머니와 꽃」이 있다。

11日에는「十大學術競進大會」, 「모의 주주총회」가 있으며 또한 각 서클의特性을살린「서클 聯合討論會」, 「演劇大會」放送局의「放送祭」, 「師範大學術大會」가 마련되어있다。또한「노래는즐거워」(MBC VT) 公開放送이있고 이어 5時부터는 축전의 마지막 밤을 장식할「백상연」이 열려에서는「노래하는곳에」(MBC라디오) 공개방송, 2部에서는「청청카니발」이 있고 3부에서는 開校 71주년을알리는 71발의 礮竹이 발사되고 이어 祝典行事의 절정인「캠프·화이어」를들으로 4일간 화려하게 펼쳐졌던「東國祝典」은 그 幕을 내리게 된다。

◇장기 근속 근무자 명단

학도호국단 새마을部 유네스코 학생회(會長=林鍾根·化工3)에서는 開校71주년 紀念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강원도 영월군 산골어린이 40여명을招請하여 4日부터 8日까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5日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사업관등 다채로운 日程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실시하는 이번 招請行事의日程은 먼저, 4日 서울 도착과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5日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날잔치를 참관하게 된다。또한 6日에는 국회의사당과 문화방송국을 見學하며 魚潰浩사단장이 베푸는 다과회에 참석한 다음 8日에는 아가에 된다。

한편 유네스코 學生會에서는 이번 행사와함께 불우이웃돕기운동을 4月27日부터 5月4日까지 벌이는데 헌옷, 동화책등의 물품을 접수하며접수처는 학생회관 5층 KUSA 써클들이다。

◇南載祐

◇林英鹿

◇張建相

行政考試 3名合格

南載祐 林英鹿 張建相君 2次에

本校南載祐(政外·4)、林英鹿(行院1·計劃行政專攻)、張建相(行院1·組織管理專攻) 君등 3명이 第20回 行政考試에 최종 合格했다。지난27日 總務處에서 發表한 第20回 行政考試 2次試驗 合格者 總55名으로 本校에서는 3名이 合格했는데, 이들중 南載祐君은 지난해 9月에 實施된 19回, 行政考試 一次試驗에, 林英鹿, 張建相君은 지난 3月에 實施된 20回 行政考試 一次試驗에 合格한후 지난 4月12日부터 15日까지 實施된 2次試驗에 부단히 合格한 것이다。

이들은 오는 5月12日 面接을 남겨두고 있다。

敎職員 一部移動

行政大學監=兪光震교수 體育部長=金尙民교수

學校 當局에서는지난 4月22日과 30日 두차례에걸쳐 敎職員에 대한 人事移動을 단행했다。

이번 人事에 따르면 새로이 設置된 行政大學監에는 兪光震교수(前企劃課長)를 각각 任命하였으며 敎務課長에는 李鍾燦 敎學課長에는 또 行政大學監 敎務主任에는 朴在憲 敎學主任에는 지도주임에 趙在浩(前학생주임)씨, 학생주임에 姜昌淳(兵事主任)씨를 轉補하고, 兵事主任에는 成芝鉉(學生課 兵事係)씨를 昇進 學生課 任命했다。

學監에는 兪光震교수 (前企劃課長)를 각각 任命하였으며 敎務課 敎學課長에는 李鍾燦 專任講師를 行政大學監 敎務主任에는 학생처 지도부장 朴在憲 學生課 지도주임에 趙在浩(前학생주임)씨 學生課 兵事主任에는 成芝鉉 學生課 兵事係 任命했다。

朴鎭洙同門 寄贈

香나무 6年生 2百그루

朴同門은 母校에서 校內環境淨化를 위한 조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동창회원을 거쳐 나무를 보내온것이다。

한편 學校當局에서는 이에따라 29·30양일간에 걸쳐 기증받은 나무를 石造館앞에 70여주를 집중배치하는등 校內全域에걸쳐 식수했다。

◇朴鎭洙 同門

金熙圭博士

韓國物理學會長에

본교 文理大物理學科교수 金熙圭 博士는 지난 4월 29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물리학회 제34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韓國物理學會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단일 학회로서 현재 8백85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金 敎授는 앞으로 2년동안 物理學會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게된다。

◇金熙圭博士

敎授動靜

희양산일대서 山岳部春季訓練

山岳部(部長=안호근·건축3)에서는 제13차 春季훈련동안을 희양산(경북문경所在)일대에서실시한다。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 되는 이번 훈련은 첫날 서울을 출발, 白雲岩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후 9일까지 등반훈련을 하게되며 新入部員 환영회를 이번 훈련에서 가졌다。

行政大學院 幹部 巡禮마쳐

◇禹會長

會長에 禹國一氏 선출

본교 行政大學院(원장=申國柱박사)에서는 77학년도 행정대학원 정기총회를 지난 4월28일(木) 오후8시 본대학원 세미나A실에서 가졌다。

申國柱행정대학원장을 비롯한 관계교수및 재학생80名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新入生歡迎會에서는 沈相一총학생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許術院長의 격려사및 李起彬(人事勞使專攻) 신입생대표의 답사가 있었으며 곧이어 先輩간의 懇談會를 가졌다。

한편 지난4月24日(日) 본대학원 總學生會 第9기생(회장=李起彬)은 도봉구에 있는 市立養老院을에 방, 준비한 慰問品을 기증하고 위로 茶菓會를 가졌다。또한 9기생의 春季野遊會를 대신하여 마련한이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토의된 중요내용은 지난 학기동안의 經過報告및 決算報告, 77학년도 회장단선출등이었으며, 신년도 사업계획및 기타 임원선출을 신임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77학년도 회장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同會長=卞仁花 (財務行政專攻) ▲副會長=孟殷任(敎育行政) ▲會長=禹國一(防衛產業) ▲副會長=孟殷任(敎育行政) ▲總務=申忠均(人事行政) ▲名譽會長=李起彬(人事行政) ▲會長=禹國一(防衛產業) ▲副會長=孟殷任(敎育行政) ▲總務=申忠均(人事行政) ▲名譽會長=卞仁花(財務行政專攻) ▲會長=禹國一(防衛產業) ▲副會長=孟殷任(敎育行政) ▲總務=申忠均(人事行政)

또한 이날 본 회의에 앞서 兪光震學監, 朴在憲교무주임의 취임인사와 아울러 금번 행정고시에 합격한 林英鹿(計劃行政專攻)·張建相(組織管理) 두 院生의 축하연이 있었으며 또한 장찬주 前會長은 이자리에서 지난 등국인물山大會서 차지한 同門部 수송컵을 申 院長에게 전달하였다。

情報處理技士合格

電算科=1名 3名 電算院=2名 5名

科學기술처산하技術검정공단에서 실시한 제2회 국가경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경상대전산학과 3명이 1급에 합격했고 전자계산원성5명이 2급에 대거합격했다。

지난4월3일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는 1급자격에는 총32명이 합격되었는데 本校에서는 전산과생3명이 合格, 李鍾沃군은 전체차석을 차지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들은 碩士수준의 대우를 받게되며 고급전산요원으로 활약하게된다。

한편 같은날 실시된 2級技士資格試驗에도 本校電子計算院(원장=錢昌源박사) 2年修了生중 정현모君등 모두 5명이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하여 그實力을 과시했다。

合格者 명단은 다음과같다。

◇情報處理1級技士

▲李鍾沃(電算·4) ▲李永晩(〃) ▲羅喜善(〃)

◇同2級技士

▲정현모 ▲이현일 ▲박미경 ▲백경애 ▲김미정 (이상5명 電算院2년修了生)

考試特講실시

오는23일부터

本校 考試指導委員會(위원장=崔皓煥박사)에서는 오는 23일부터 고시지망생을 위한 考試特講을 실시한다。

고시지망생의 각종 國家考試에 높은 합격율을 내기위해 오는 7월8일까지 계속될 이번특강은 고시준비생및 각급大學 재학생을 대상으로 司法, 行政, 外務고시의 共通科目을 위주로 실시되므로 많은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7일부터 17일 사이에 法政大 敎學課및 고시반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강의실과 강사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正覺院奉佛式

高大寂光신도 寄贈

正覺院(원장=李智冠박사) 奉佛式이 27일 오전 11시 正覺院에서 있었다。

니불 좌상을 溪安한 석가모니불 좌상은 높이 약 1m의 석가모니 이식은 慈雲(曹溪宗總務院長)스님의 집전으로 學處長등 敎職員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이날 강의실에서는 충격을 불러일으킨 墨子思想의 現代講 李元燮講師의 信徒(一宇海運社長 閔容植 同門부인)가 寄贈한것이다。

茶山學의 理解

◇茶山學 敎授

◇金熙圭博士

韓國物理學會長

金熙圭博士

◇朴鎭洙 同門

산골 어린이 招請

유네스코 學生會서

洞探部 春季探査

단양·영월地區로

동굴탐험연구회(회장=최용근·일학4)에서는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단양, 영월지구를 대상으로 春季동굴탐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리수

월요병이란 병이있다。주초의 알파가 흐리기시작한 병이다。그러면 토요병도 있어야 할것이다。주말이 잡쳐지는 그런병도 있을것이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토요병·일요병은 없는듯하다。새로운 주를 맞이하면 새로운 기분이나 와야하는데 월요병이라고 하니 이것은 정말 큰병이 아닐수 없다。

한학의기대와 해방의 주말을 기다리는 사람마이 날로 많아져 가고 있다。주말이 곡무슨 행운의 열쇠인듯 이날을 기다리고 이행운의 자물통을 활짝 열어보려는 사람이 많다。그렇게 행복이 열리지않을 것이다。그러면 행운은 영원히 잠겨있는 자물통이가。주말이 개운하지 않으므로 주초가 무거운것이다。놀이로, 환락으로, 몸으로 구하는 주말은 어둡고 무거울뿐이다。무엇인가 다른것으로 주말을 찾아서야 할것이다。

어느토요일 오후 조용한시간 大丈夫論의 일절을 읽어본다。『구도자는 자식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리라。구도자의 자비심은 가진것이 없어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없다 하지 아니하고 자비가득한 눈물을 떨구는데 피로워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도도히 가엾은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는데도 울어나는 사람이 어리석다。그런데 구도자가 눈물을 흘릴때는 세가지 경우가 있다。첫째 공덕을 닦는 사람에대하여 공경하는듯으로, 둘째는 고통받는 중생이 꽁지 못하나니 오히려 고통에 견디지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시여할것이 있는 사람을 보고서 아무것도 없을라치면 탄식하여 공경하는듯으로, 둘째는 고통받는 중생이 꽁지 않는 것을보고, 셋째는 대보시를 닦아갈때 자비심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것이다。이때에 흘린눈물을 제탁 (計度)하면 사더양의 바다물보다 많은 것이다。』

창문을 활짝 열고보니 주말의 봄바람이 방안에가득찬다。향한가치를 사루어 부처님께 찬양하였다。그리고 조금전에 읽었던 大丈夫論의 구도자가 품고있는 자비심이 번져나가기를 빈다。토요일 오후에 선정(禪定)에 든 마음이 주초까지 이어지면 월요일에 찾아드는 현대병이 어디에 남아있을 것가。

<睦槇培>

月曜病

○ ○

玄岩社 信義와 誠實 서울特別市 鍾路区 鍾路5街1番地 玄岩빌딩 ㉑6141 6142編輯 ㉑6143經理 ㉑6144 社長 ㉑6145 對替口座 509877

*迷妄의 잠을 깨우는 知性과 感性의 홀연한 開眼!

*보통圖書의 3倍에 達하는 誠實性으로 엮어진 玄岩社 圖書의 眞價!

名哲文藝新書

㉑韓國人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의 性格分析! 東亞文化硏究所編 1,700원
㉒韓國學 槪念設定과 方向定立을 위한 分野別執筆! 丁若鏞著/李乙浩譯 1,200원
㉓牧民心書 實學思想의 代表的인 名著를 現代譯! 李瑄根譯 1,800원
㉔栗谷의 思想 栗谷의 政治·哲學·敎育思想의 現代譯! 李俊浩譯 1,500원
㉕懲毖錄 壬辰倭亂의 자세한 삼황을 기록한 名著! 柳成龍著/南晩星譯 1,200원
㉖明心寶鑑 우리 가치관을 형성해온 儒敎倫理의 批判! 李東歡譯註 1,500원
㉗코리언스케치 外國人의 눈을 통해본 開化期의 風俗! 게일著/張文平譯 1,300원
㉘新譯莊子 우리의 現代譯과 東西古今의 註釋! 安東林譯註 2,500원
㉙佛敎槪論 佛敎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理論書! 塊谷文雄著 1,200원
㉚社會科學의 方法論 方法論을 다룬 國內學者들의 力著! 李奎浩外著 2,500원
㉛文章의 技術 理論과 풍부한 사례로 엮은 文章講話! 朴木月著 2,600원
㉜文學을 찾아서 우리 시대의 현실을 분석한 文學批評書! 崔仁勳著 1,200원
㉝性과 知性 現代의 性問題를 파헤친 知的批評書! 콜린 윌슨著 1,400원
㉞人生論 젊은이들에게 座標를 제시해주는 名著! 폴스토이著 1,200원
㉟相對性原理 알기 쉽게 풀이한 相對性原理의 世界! 코울먼著 2,300원
㊱核戰爭 核戰爭의 內幕을 파헤친 問題의 書! 렘프 랜著 2,300원
㊲未來學 現代의 進路를 찾는 未來學入門書! 春山健一著 2,400원
㊳孔子의 思想 名文으로 엮은 孔子의 生涯와 思想! 林語堂著 2,200원
㊴釋迦의 生涯와 思想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석가의 傳記! 朴敎卿譯 1,500원
㊵實學思想의 探究 實學의 思想的 측면을 탐구한 力著! 高麗大亞硏編 1,200원
㊶法句經 佛敎의 本質을 천명한 東洋의 名著! 金達鎭譯 1,700원
㊷唐詩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唐詩의 現代譯! 李元燮譯註 1,800원
㊸新譯墨子 충격을 불러일으킨 墨子思想의 現代譯! 李元燮譯註 1,700원
㊹青年文化論 世界青年文化의 本質을 밝힌 力著! 李眞淑著 1,500원
㊺茶山學의 理解 實學의 完成者로서의 茶山思想의 전모! 李乙浩著 1,500원
㊻禪詩 古典的 禪文學에서 정선한 禪詩의 世界! 釋智覺譯註 1,500원
㊼哲學의 즐거움 哲學의 즐거운 內面을 탐구하는 名著! 裵宗鎬著 1,500원
㊽文心雕龍 東洋的 관점 위에 定立된 修辭學과 文學論! 崔信浩譯註 1,500원
㊾退溪의 自省錄 退溪思想의 핵심을 이루는 名著의 現代譯! 尹絲淳譯註 近刊
㊿藝術哲學 예술의 哲學思想을 체계화한 理論書! 얼드리치著 1,200원
(51)現代中國의 理解 現代 中國의 全貌를 밝힌 理論書! 崔明著 1,600원
(52)秋史集 秋史 金正喜文集의 現代譯과 註釋! 崔完秀譯註 2,000원
(53)精神力의 奇蹟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 問題의 書! 단 카스터著 1,700원
(54)隨筆의 理解 풍부한 例文을 통해본 隨筆入門書! 張伯逸著 1,500원
(55)新譯荀子 性惡說을 주장한 荀子思想의 理解書! 尹五榮譯註 1,800원
(56)新譯韓非子 法家思想의 代表的인 著書의 現代譯! 南晩星譯註 2,000원
(57)孫子兵法 불멸의 名著로 일컫는 兵法의 古典! 趙乭黃譯註 1,500원
(58)菜根譚 자연과 인생을 담담하게 관조한 隨想錄! 퍼르달著 1,500원
(59)經濟學批判 노벨經濟學賞受賞者 뮈르달의 新著! 퍼르달著 2,000원
(60)涅槃經의世界 佛敎思想의 精髓 〈涅槃經〉의 案內書! 田村芳朗著 1,500원
(61)般若·維摩經의 智慧 空의 思想을 밝힌 〈般若經〉과 〈維摩經〉! 石田瑞磨著 1,500원
(62)華嚴經의 世界 난해하기로 이름난 〈華嚴經〉의 案內書! 玉城康四郎著 1,500원
(63)阿含經 이야기 佛敎의 根本聖典 〈阿含經〉의 理解書! 塊谷文雄著 1,500원
(64)미란타王問經 佛敎思想과 헬레니즘思想의 對比! 石上善應著 1,200원
(65)아시아의 드라마 1974年度노벨經濟學賞受賞作! 퍼르달著 2,300원
(66)文化속의 數學 文化의 저변에 흐르는 數學思考의 理解書! 金容雨著 1,500원
(67)新羅佛敎文學硏究 본격적인 新羅佛敎文學의 학문적 통찰! 金煐泰著 2,000원
(68)貧困의 挑戰 김브레이드著 2,000원
(69)돈·그 歷史와 展開 퍼르달著 1,800원

名哲文藝新書

梁文吉 小說集 風化 이 時代의 고뇌를 묘파한 中短篇集! 梁文吉作 1,200원
70年代芥川賞小說集 日本文學의 첨단 芥川賞受賞作 集成! 金后爾外譯 1,500원
긴이별에 짧은편지 문제작가의 代表的인 中篇小說 三篇! 페터 한트케作/朴光子譯 1,200원
가브리엘라 특이한 여주인공을 중심으로한 第三世界文學! 조르주 아마도作/安正李譯 1,500원
世界名隨筆選 韓國戰爭의 발발에서 休戰까지의 秘話! 張伯逸編 1,300원
名曲의 즐거움 오백여 명곡을 해설한 名曲鑑賞事典! 金正植編著 1,500원
또 하나의 나라 黑人의 비애와 분노를 묘파한 問題作! 제임스 볼드윈作/李秀光譯 1,300원
李浩哲作 南風北風 失鄕民의 비애를 묘파한 作家의 眞境! 李浩哲作 1,300원
黃晳暎作張吉山 第三部/碧天/上·下 第一部/炭火/上·下 광대 출신의 義賊 張吉山의 파란만장한 生涯! 黃晳暎作 2,200원
裸者와 死者 戰爭小說의 걸작으로 評價되는 長篇小說! 노만 메일러作/安東林譯 上·下各1,000원
人間의 소리 無名 전몰자들의 手記를 엮은 異色記錄書! 벤어먼著/閔丙山譯 800원
자카르타의 黃昏 특이한 수법으로 엮어진 問題의 社會小說! 못비스作/丁榮林譯 900원
韓國戰爭 특이한 수법으로 엮어진 問題의 社會小說! 페렌바作/安東林譯 1,600원
험볼트의 膳物 76年度노벨文學賞·플리쳐賞受賞作! 소울 벨로우作/安正李譯 1,500원
野望의 季節 TV영화로 젊은이들을 매료시킨 小說! 어윈 쇼우作/安正李譯 上·下 1,500원
金容誠 小說集 홰나무 소리 長江과도 같은 金容誠文學의 精粹! 金容誠作 1,500원

考試合格과 勉學風土

社說

行政考試는 司法考試와 더불어 國家考試中 가장 어려운 難關의 하나이다. 지난번에는 本校 學部生, 大學院生등 40餘名의 다수가 司法考試第1次에 合格하여 母校의 이름을 크게 빛낸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行政考試 最終試驗에 學部生및 大學院生 3名이 合格하였다는 朗報에 접하게 됐다. 이는 本人들의 榮譽는 물론이려니와 母校의 커다란 慶事가 아닐수 없다. 大學生活을 오직 考試合格이라는 하나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굳은 意志와 끊임없는 努力으로 장식해온 오늘의 行政考試合格者들의 勞苦를 致賀하는 동시에, 다른 同窓生들도 「하면된다」는 先例를 이 合格者들로부터 確認할수 있을 것이며, 더욱 奮發하여 先輩者의 榮光을 來日로 계승해 잘수 있도록 勉學에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늘날을 가리켜 競爭의 時代라고 흔히 말한다. 國際間의 競爭이 보편 잘 알수 있다. 즉 大學社會에 있어서는 知識의 競爭이 날로 가열하여 가고있다. 大學에 入學하기까지 學生들은 수많은 入試競爭을 거쳐왔다. 4年間의 大學生活도 恒久的인 安住의 場所일수는 없다. 그것은 大學이 결국 社會로 進出하기위한 準備段階에 불과한것이며, 좋은 자리를 택하여 進出하려는 경쟁이 必然的으로 隨伴되기 때문이다. 國家産業의 급격한 發展은 우수한 頭腦와 일꾼을 요구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자연히 좋은 자리가 주어질 수있는 狀況아래있다고 할것이다.

本校卒業生의 就職率이 해마다 上昇하고있음은 그것을 충분히 立證한다고 할것이다. 이제는 各種 國家考試에 있어서도 많은 合格率을 보이게 되었으니 本校는學問의 競爭에 있어서도 獨者의 地盤을 튼튼히 굳히게된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힘써 構築한 이 地盤을 堅持하기 위해 進軍의 速度를 한층더 높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지난번 司試 一次의 多數合格, 이번의 行政考試最終合格者의 慶事가 겹치게 된것은 一朝一夕에 생긴 우연한 일이라할 수 없다. 工夫하는 學生, 가르치는 敎授의 努力에 學校當局의 적절한 施策의 奏効한바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것이다. 本校의 경우 이러한 施策을 遂行하는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周知의 事實이다. 5年前부터 特待生을 募集하기도하였고, 寄宿舍施設을 마련하기도했고, 入學後의 指導方案으로 考試班制度를 두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을 實行하는데는 다른 大學에서는 볼수 없을 장도로 多額의 奬學金制度를 擴充 活用하고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學期부터는 學術部를 擴張하여 學術班을 2個考試班으로 運營을 管掌하게 되었고 이에 專擔하는 敎授를 二名식 配置하게된것은 今後의 考試班指導에있어서 보다 効率的 成果가 期待된다할 것이다.

機構나 運用의 妙나 혹은 形式이냐, 內實이냐의 말들을 흔히 하게된다. 機構를 設置했다고해서 당장에 目的하는 바가 達成되리라고 速斷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단 學術活動의 指導育成을 위해 새部署가 마련된 것은 새發展의 기틀을 세우게된 셈이다. 考試班運用을 중심으로한 指導에있어서 과거 5年間 그 토대는 構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는 알찬 結實을 깨끗이 해야할 것이다.

한 사람의 獨逸國民이 詩聖 괴테를 낳기위해서는 수많은 詩聖 괴테를 낳기위해서는 全體學生들이 勉學雰圍氣를 깨뜨리지 않도록 세심한 注意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俗談에도 「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몇사람의 學生의 부주의로 인하여 高潮되어가는 勉學雰圍氣를 해치거나 그 때문에 考試準備하는 學生들의 意慾을 減退시키는 일이있어서는 안될것이다. 大學은 하나의 共同體이며 生命을 가진 有機體와 다름이 없다. 그 共同體의 構成員은 自己 이외의 一員으로서는 自己 이외의 共同體의 一員으로서는 團體의 一部分이 된다. 人體의 모든 機關이 조화롭게 活動할 때 生命이 躍動하듯이, 共同體의 各構成員이 各自의 맡은 位置에서 自己職分을 다할 때 共同體는 무한한 發展을 할수있다. 그것은 競技場에서 選手와 應援團과의 呼吸의 一致가 勝利를 約束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意味에서 바야흐로 定着되어가려는 學內勉學雰圍氣를 해치지 말도록 努力하면서 考試準備生들에게 理解있는 支援을 아끼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民族과 民族文化

민족과 언어

<김성배 · 도서관장>

사람의 눈을 줄겁게 해주는 것은 지평선같이 옆으로 퍼진 직선과, 위 아래로 내려오는 직선과, 韓國의 傳統建物의 처마와 같은 곡선이다. 이 세가지 선이 고루배합이 되어야 美가 갖추어진다. 美國의 미시시피가에 서면 그 거대한 自然에 도취되면서도 이 江은 北에서南으로 거의 직선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알았을때 곡선의 不在로 인하여 금방 멋대가리없는 허전한 감을 느낀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洛東江은 이곳 저곳 山모퉁이를 구비구비 돌고 돈 곡선 이다. 뉴욕의 하늘을 찌르는 高層빌딩들은 要約하면 위로치솟은 하나의 직선에 불과하다. 광막한 自然의 직선과지평선을 위로 세워놓은 人工의 직선만을 보고 사는 美國人들의 感情은 曲線缺乏症에 걸려있다. 우리나라에 와서 古宮에 처마의 曲線을 쳐다보고 훤대를 연발할때 그들의 그 缺乏症이 약간 치유될 것이다.

美國인들서 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獨逸에도南部에는 山林地帶가 있다. 그러나 그런 나라에서는 역시 平野가 많고 山구경을 하기가 퍽어렵다. 또 바다를 보기도 쉽지 않다. 이에 반하여 韓國의 경우는 그 自體가 하나의 큰 山이다. 山과 물과 江이 골고루 잘 배합되어 아름다운 調和를 이루고 있다. 詩人괴테는 「調和속에 美가 있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調和는 秩序가 있다」고 했으니 결국 美에서 질서를 볼 수 있다.

宇宙는 巨大한 存在인데 그것은 지평선과 수직선의 調和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韓國人에게 있어서는 山과 江이 곡선과 직선의 調和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韓國人은 이 調和의 美를 사랑하고 그것을 충분히 立證한다고 할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合格者들이 있어서도 많은 各種 國家考試에 있어서도 卓越한 成果가 期待된다할 것이다.

<김성배 · 도서관장>

民族과 民族文化

——自然美 惠澤으로 풍부한 秩序意識

<김성배 · 도서관장>

지난 4월14일 김성배박사는 延世大學校 국어순화운동학생연합회가 주관한 「국어순화강연회」에서 「민족과 언어」라는 主題로 강연을 가진바 있다. 이강연은 民族과 民族文化에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데 있었서 그 成果가 기대된다. 우리 民族의 自主的 生存의지와 文化傳統을 쇄신하고 大學文化의 成長을 위해, 이를게기로 「民族과 民族文化」에 관심을 가져보기로 한다.

민족은 혈연공동체(血緣共同體)·지연공동체(地域共同體)·역사공동체(歷史共同體)·문화공동체(文化共同體)·언어공동체(言語共同體)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이란 혈연이 같은 민족이 같은 지역(영토내)에서 그 민족이 창조해낸 민족언어에 의해 역사를 이룩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겨레를 말한다.

언어가 인간의 사회 생활과 근원적으로 결합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 곧 언어의 기능이나 요소가 사회 생활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되고, 발전 향상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가 영위하여 온 사회 생활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형태는 민족국가이므로 언어는 특정한 민족 국가의 언어인 특수한 국어로써 가장 강력하게 존재하고 작용된다.

언어의 기원을 자연(nature)에 구하느냐, 사회적인 관습, 또는 규약(rule)에서 구하느냐는 고래로 끊임없이 논쟁되었던 문제로서, 현존하는 언어가 이루 가지의 제 정신적 소질과 감정의 움직임이 언어의 의의·발음·문자·어휘·어법·어감·어조·정서 등에 구체화되고 반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민족을 둘러싼 객관적(물질·정적) 자연과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신체적·정신적) 자연이 같이 어울려 민족의 언어를 제약하는 것은 마땅한 현상으로 인정된다.

다른면에서 고찰할 때 민족의 언어는 민족 공유의 표현수단이요, 이해 수단이고, 민족 성원간(成員間)에 체험의 표현과 전달로 쌓아져서 민족의 생활 체험이란 객관적으로 보면, 민족의 문화와 다름없다. 그러므로 민족의 문화는 그 언어의 강력한 지배와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곧, 언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 다시말해서 역사적으로 발전 향상되어가는 문화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언어 문화는 다른 여러문화 영역과 밀접히 교섭·교류되어 형성되고, 전체적·문화적 유대관련을 맺게한다.

언어는 민족의 문화(주관적으로는 민족의 체험)가 형성시키는 것이지만, 반대로 민족의 문화는 그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고 이해되며, 전달·보급·유지·개발되는 것이다. 민족의인생관·사회관·자연관·국가관·민족관·세계관도 그 민족의 언어와 밀접히 결합되고 민족의 특질은 한국 민족의 思想은 모두 自然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韓國人에게 있어 倫理體系는 父母 地先 母母 模寫였다. 天倫 父母 地先 母母 模寫 하였다. 어느 民族보다 아름다운 自然의 풍속에서 살아왔다. 항상 自然의 美를 보음이 사는 韓國人은 또한 그만치 아름다웠으며內 自然精神에 담고있는 美를 外部에로 形成하려고 했다. 新羅나 百濟人들은 宗敎가 곧 自然과 合理性과 安定感을 풍부케한 山林地帶의 公館 駐韓美大使館의 純韓國式으로 할때 美大使가 韓國式建物의 長點을 가리켜 「韓式建築」이라고 했다. 그때 그때 美大使는 그 때 그 때 그 때

世界名著散策 <16>

「忿怒는 葡萄처럼」등을 통해서 본 존·스타인백의 作品世界

共同善강조, 人間尊嚴의 勝利그린 戰後巨作
人間救濟의 길 摸索
寓意·非目的·超越論的 思想 지녀

金福善 <文理大副敎授>

思想은 非目的論보다 더 定義하기 어려운 사상이다. 그러나 다만 個人主義에 철저하면서 동시에 私心을 버리고 남을 생각한다는 일종의 理想主義思想이 곧 超越論이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해 두면 무방할 것이다. 초월론의 내용을 알자면 미국 Transcendentalism의 三大作品인 에머슨의 Self-Reliance〈自立〉, 소로의 Walden〈월든〉 그리고 휘트먼의 Leaves of Grass〈풀잎〉을 읽어보는 것이제일 좋을 것이다. 아무튼 人間의 尊嚴性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초월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바, 스타인백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始終 어떤 主義에 치우치지 않고 作品活動에 임했던 것이다.

스타인백의 이러한 세가지 특색은 그의 창작과정에서 서로 보완내지는 배척함으로써 作品의 성공과 失敗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그가 직접 경험한 세계에서 재미난 素材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가 寓話를 즐긴탓으로 즐거움에 멋이 틀였고, 그 非目的論的 思想의 덕분으로초연한 과학적 태도를 발휘할수 있었으며, 그 理想主義的 초월론으로 말미암아 同情이 강해질수 있었다. 이런 情熱的인 동정덕분에 The Red Pony〈붉은 망아지〉나 The Grapes of Wrath〈忿怒는 葡萄처럼〉이 社會的으로나 藝術的으로 훌륭한 작품이 되였던 것이다.

이상으로 스타인백의 창작세계의 특징을 간단히 보아왔거니와 이러한 특징에 근거한 그의 구체적인 작품을살펴 보기로한다.

스타인백은 1937년에 Of Mice and Men〈생쥐와 人間〉으로 일약 美文壇에서 확고한 地位를 굳혔다고 할수 있다. 조그만 단편우화에 지나지 않은 이 作品은 초판 7만5천부가 매진되고, 연극각본으로 각색되어 上演되였을 때는 劇評論家協會賞 1등에 당선되고, 장기공연이 계속되면서 영화화까지 되였었다. 이 作品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자기가 여태까지 애써찾은 형식—즉 극의 소설화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수법의 소설형식을 찾아낸 셈이였다. 〈생쥐와人間〉은 상징소설이라고 작가 자신이말하고 있다. 人間이 자기의 동력밖에 미물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를보호하는 유일한 길은〈꿈〉밖에 없다. 「생쥐와 人間이 제아무리 피를 부려도별수 없다」고 한 作中人物 번스의 말에서 「생쥐와 人間」이라는 表題가 나왔거니와 人間은 자기힘으로 어쩔수 없는 무수한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그 힘은 人間이 만들어낸 갖가지 꿈을 무자비하고 냉정하게 무너뜨려버린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혼돈된 여러가지 힘에 희생되는 人間들에 대한스타인백의 강렬한 동정과 분노를 표현한 지연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이 바로 이 「생쥐와 人間」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作品은 불굴의生存意志의 승리를 다룬 희극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앞에 人間이 패배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이니고 人間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자연을 정복하고, 애를 쓰면서 의식적으로 자기존대의 착각을 물리치고 종속적 자기본수를 감수하는 에지를 터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생쥐와 人間〉에서 作家로서의 力量과 地位를 굳힌 스타인백은 바로이어서 1939년 그의 불구의 명작인 The Grapes of Wrath〈忿怒는 葡萄처럼〉을 世上에 내놓음으로써 美國文學史上 영원한 地位를 다져잤다. 初版 50여만부가 순식간에 팔려나간 이 作品의 선풍적인 人氣는 마거리트·미첼의 Gone with the wind〈바람과함께 사라지다〉와 더불어 1930년대 美國出版界의 최대사건의 하나로 오늘날도 평가되고 있다. Alexander Cowie는 〈The Rise of American Novels〉에서 이 作品을 가리켜 兩次 世界大戰 사이에 나온 小說文學의 모든 가지있는 특징을 훌륭하고 힘있게 集大成해 놓은 최대의 결작이라고 평하고 있거니와 이 作品은 스타인백의 創作生活의 절정의 이루는 作品일뿐아니라 미국문학의 한지대에 끝을 맺어놓은 大作品에 틀림없다.

作家는 作中 主人公「조드네」이야기를 통해서 人間〈靈魂〉의 숭리를 희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했었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偏見과 自尊感識이 協同을 막는 世界에서 協同은 오직 個人이 자진해서 자기네 특수權益을 도의적하고 共同의 目的을 도모해야만 實現된다는 것이 이作品속의 主題가 되어있다. 따라서 이 作品속에는 하나의 世界政府를 모색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안고 있거가지의 至難한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 主題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自發的인 협동을 강조한 페미니즈의 各種 擁益團體의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

超越論者들은 文明社會의 제도에 오염 부패되지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인간은 옳은일을하게 마련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忿怒는 葡萄처럼〉은 소설이지 논문은 아니다. 이것은 藝術작품이지 社會學 혹은 哲學책이 아닌 것이다. 예술가로서의 스타인백은 인간형동을 그대로 그려내는데 관심했었지 인간행동의 規範을 세우려한것이 아니였다. 사람이 본연의 자세를 잘 길러나가는것을 제시했을 따름이지 어떤 法則·規範을 강조내지는 역설한 目的의소설로 전락하지 않았던것이 이작품에 영원한 예술성을 찾는 生命力이기도 한것이다.

Steinbeck 은 그의 위대한 선배인 Hawthorne과 마찬가지로 역시 「영속적이고 실속있는 개혁은 오직 개개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투철한 신념밑이 現代의 대숙적인 物質社會에서 상실되어가는人間」을 구제하고 회복하는 길이라는것」을 그의 수많은작품을 통해서 특히 「The Grapes of wrath」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自身에 充實했다는 南君.

行政考試 合格者 南載祐 (政外·4)君

제20회 行政考試 2차 시험에 합격한 南載祐(政外·4)君. 그는 진학부터 평소에는 모시락 2개를 싸가지고 학교도서관과 政治學硏究室에서, 방학중에는 절을 찾아 하루 10시간이상을 꾸준히 공부해온 노력파로 정평이 있었다.

『考試공부에는 별다른비결이 있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만큼의 댓가는 꼭 돌아온다고 믿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에 充實했음니다』고 말하는 南君의 침착한 表情에서 오늘의 영광이 결코 우연이 아닌 피와땀과 눈물의 結晶임을 알 수 있었다.

考試공부는 앞에 네세운 목표이외에는 一切를 포기해야만하는 苦行의길이라며 쥐죽이 않도록 격려를 주신 교수님과 꾸준히 뒷바라지를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것 같아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활짝 웃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南군은 공부도중틈틈이 좋아하는 소설을 읽었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본교 在學生으로는 8년만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南君은 『누구나 꾸준히, 열심히 노력 精進하면 원하는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것』이라며 후배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잊지않고 학교측에는 『考試班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시특강의 强化로 학생들에게 의욕을 불어 넣어주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工商를 졸업해 他學生에 비해 社會科學에 대한 기초지식의 부족과 政治學 外科에서 배우는 科目이 考試과목과 틀려 공부하는데 애로점이 많았다며 주로 1, 2학년때에는 주로 校修業에 충실했고, 3, 4학년때에는 考試에 대비, 책과 도서관에서 씨름했다고 한다.

『이젠 합격했으니 운동으로 건강도 좀 회복해야겠고, 자신을 위해 더 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영광에 만족치 않고 계속 공부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國家行政機關에 들어가 우리나라 政治行政의 쇄신을 기하는데 一翼을 담당하고 싶다고말해 社會正義 具現에 대한 장한 집념을 보이기도.

이번 南君의 합격 영광은 지난해 9월실시된 행정고시 1차시험에 합격한지 7개월만에 얻은 快擧.

수험준비기간에 특별한 고충은 없었으나 갖은유혹을 뿌리치는데 가장 평범한 學問의 자세를 취했다고 말하여 여운을 준다.

◇略歷

▲경기도 양주출▲南相翊(55)의 1남2녀중 의아들 ▲서울공고卒▲74년 本校 政外科入學▲76년 9월 19회 行試 1차합격 ▲77년 4월 20회行試 2차합격.

〈鎬〉

學問의 世界 事攻으로 가는길

李昌培 <文博·文理大敎授>

英語英文學

原·飜譯書 多讀이 첩경
英美文學 批評能力 向上시켜야

李昌培 <文博·文理大敎授>

이글을 요구하는 즉의 의도가 英文學硏究의 본격적인 방법을 말하라는 것이 아닐 것이므로 筆者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처해있는 現實的인 입장에서 英文學科에 들어온 학생들의 기본學習자세를 말하고자하는 것뿐이다.

英文學科에 들어온 우리나라 學生들에게 宿命처럼 課해진 두가지 制約條件이 있다. 한가지는 이科에 들어온 學生들 거의 전부가 英文學에 취미가있거나 英文學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英語를 좀더 익혀서 그것을 社會進出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보고자 하는 實用主義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英文學科에 들어왔되 英文學 作品을英語로 읽을수 있을만한 충분한 語學力을 갖추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두가지 슬픈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英文學科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고, 그러면서도 절대로루 시할수 없는 기본조건인 것이다. 그래서 大學敎育이 人文學까지도 다분히 實用主義的으로, 또한 大衆敎育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하에서 그리고 英語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敎育의 특징한테서 가고 있고 實用도 아닌 접중도가 희박한 학과로 성격이 드러나 있다.

이런 커리큐럼에 의하여 學生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 「英語를 좀더 잘하는」방향으로 밀고 나아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약간의 助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학생들이 英文學科에 들어온것을 다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英文學科에 들어온 이상 학생들은 文學을 배우면서 동시에 英語의 文學도 아니고 語學도 아니고 實用도 아닌 접중도가 희박한 학과로 성격이 드러나 있다.

커리큐럼에 의하여 學生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 「英語를 좀더 잘하는」방향으로 밀고 나아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약간의 助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학생들이 英文學科에 들어온것을 다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英文學科에 들어온 이상 학생들은 文學을 배우면서 동시에 英語의 學問的인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文學에 취미가있거나 英文學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英語를 좀더 익혀서 그것을 社會進出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보고자 하는 實用主義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英文學科에 들어왔되 英文學 作品을英語로 읽을수 있을만한 충분한 語學力을 갖추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두가지 슬픈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英文學科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고, 그러면서도 절대로루 시할수 없는 기본조건인 것이다. 그래서 大學敎育이 人文學까지도 다분히 實用主義的으로, 또한 大衆敎育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하에서 그리고 英語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敎育의 특징한테서 가고 있고 實用도 아닌 접중도가 희박한 학과로 성격이 드러나 있다.

커리큐럼에 의하여 學生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 「英語를 좀더 잘하는」방향으로 밀고 나아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약간의 助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학생들이 英文學科에 들어온것을 다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英文學科에 들어온 이상 학생들은 文學을 배우면서 동시에 英語의 學問的인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文學에 취미가있거나 英文學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英語를 좀더 익혀서 그것을 社會進出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보고자 하는 實用主義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英文學科에 들어왔되 英文學 作品을英語로 읽을수 있을만한 충분한 語學力을 갖추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두가지 슬픈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英文學科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고, 그러면서도 절대로루 시할수 없는 기본조건인 것이다. 그래서 大學敎育이 人文學까지도 다분히 實用主義的으로, 또한 大衆敎育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하에서 그리고 英語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敎育의 특징한테서 가고 있고 實用도 아닌 접중도가 희박한 학과로 성격이 드러나 있다.

커리큐럼에 의하여 學生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 「英語를 좀더 잘하는」방향으로 밀고 나아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약간의 助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학생들이 英文學科에 들어온것을 다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英文學科에 들어온 이상 학생들은 文學을 배우면서 동시에 英語의 學問的인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文學에 취미가있거나 英文學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英語를 좀더 익혀서 그것을 社會進出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보고자 하는 實用主義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英文學科에 들어왔되 英文學 作品을英語로 읽을수 있을만한 충분한 語學力을 갖추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두가지 슬픈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英文學科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최근의 大學敎育이 人文學까지도 다분히 實用主義的으로, 또한 大衆敎育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하에서 그리고 英語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敎育의 특징한테서 가고 있고 實用도 아닌 접중도가 희박한 학과로 성격이 드러나 있다.

커리큐럼에 의하여 學生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 「英語를 좀더 잘하는」방향으로 밀고 나아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약간의 助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학생들이 英文學科에 들어온것을 다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英文學科에 들어온 이상 학생들은 文學을 배우면서 동시에 英語의 學問的인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文學에 취미가있거나 英文學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英語를 좀더 익혀서 그것을 社會進出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보고자 하는 實用主義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英文學科에 들어왔되 英文學 作品을英語로 읽을수 있을만한 충분한 語學力을 갖추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두가지 슬픈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英文學科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최근의 大學敎育이 人文學까지도 다분히 實用主義的으로, 또한 大衆敎育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하에서 그리고 英語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敎育의 특징한테서 가고 있고 實用도 아닌 접중도가 희박한 학과로 성격이 드러나 있다.

커리큐럼에 의하여 學生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 「英語를 좀더 잘하는」방향으로 밀고 나아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약간의 助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학생들이 英文學科에 들어온것을 다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英文學科에 들어온 이상 학생들은 文學을 배우면서 동시에 英語의 學問的인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文學에 취미가있거나 英文學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英語를 좀더 익혀서 그것을 社會進出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보고자 하는 實用主義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英文學科에 들어왔되 英文學 作品을英語로 읽을수 있을만한 충분한 語學力을 갖추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두가지 슬픈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英文學科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최근의 大學敎育이 人文學까지도 다분히 實用主義的으로, 또한 大衆敎育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하에서 그리고 英語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 敎育의 특징한테서 가고 있고 實用도 아닌 접중도가 희박한 학과로 성격이 드러나 있다.

커리큐럼에 의하여 學生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각자가 현실적으로 목적하는 바 「英語를 좀더 잘하는」방향으로 밀고 나아갈것인가 하는데 대하여는 약간의 助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학생들이 英文學科에 들어온것을 다행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이야 어떻든 英文學科에 들어온 이상 학생들은 文學을 배우면서 동시에 英語의 學問的인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英文學에 취미가있거나 英文學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英語를 좀더 익혀서 그것을 社會進出의 유용한 도구로 삼아보고자 하는 實用主義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英文學科에 들어왔되 英文學 作品을英語로 읽을수 있을만한 충분한 語學力을 갖추고 있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두가지 슬픈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英文學科의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서울순례 (7)

創立 12周年 맞아 成熟단계

KUSAD

산골 어린이 초청등 注目돼

◇冬季奉仕活動

「혼자면 讀書 둘이면 對話, 셋이면 合唱」 벗이면 遲則이라는 서생활 창조에 앞장 선다는 취지아래 뭉친 KUSA-D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Dongguk)는 약 2백30여명의 會員을 가진 汎大學的 매머드 써클이다.

견전한 學風土造成과 새로운 大學生像 定立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本校 KUSA (회장=일중 足한 것은 大學街가 방근·化工3)가 정식 發 향감각을 상실한채 혼난 가득하다.

휴지통

시설貸與는 質이 문제
勉學에도 禮儀는 지켜야

○…지난 十曙日 오후 石造館앞에는 떠나간 1천3백여명의 異邦人들이 몰려 學生들의 耳目을 끌었는데, 理由를 알아보니 石造館이 자동차 면허필기시험장으로 쓰이게 되였다는것. 老少 수험생들이 佛像을 보호하고있는 최사실에 걸터앉아 잔디밭에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얌체족들이 많아 內에서는 험장 內에서는 껍을 뽑는등 東西를 불문하고 學生들의 「순상을 저주리게 했다.

○…탁구협회장을 휘날에 그대로 부려끄기도하고 잔디와 나무가지를 못쓰게 구는등 마치 소홀나온이 탄이이들 같았다. 學校當局은 학교시설을 훼손하는 유일한 길은〈꿈〉밖에 없다.

○…학도호국단 敎養學長은 교수층 1급으로정상에 올라 기업을 만했으나, 정작 전체 49名중 16위에 그쳐 學生들의 關力優位를 입증했고, 끝에서 3위를 차지한 李丙酒 마절리 2갈파 五蓋

○…

山名物 도토리묵을 곁들인 30일밤의 캠프·화 話를 갖느라고 늦였다는 이어서 교수들의 구수한 옛느래와 학생들의 낭만이 어우러져 한껏 흥취를 돋구었는가 하면 禪을 체험한 것과 寂滅의 경지에 오른 듯한 이번 巡禮行의 의의를 심분 살린 것이라고 1일 비로봉(1,56 3m) 山行에서 李鍾燮과 교수층 1급으로정상에 올라 기업을 만했으나, 정작 전체 49名중 16위에 그쳐 學生들의 關力優位를 입증했고, 끝에서 3위를 차지한 李丙酒 마절리 2갈파 五蓋

○…

시설貸與는 質이 문제 勉學에도 禮儀는 지켜야

……○

○…도서관 建物 1層에 마련된 「電算院전용열람실」에 學部生이 자주 드나들어 전산원生에게 지장을 주고 있다.

「전산원生外 出入禁止」라는 팻말도 아랑곳없이 學部生이 사용하는 이유는, 3층에 있는 本校生전용열람실보다 거리가 가까울 뿐더러, 아늑한 雰圍氣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이에 대해 전산원에在學中인 C某君은 「3層에 말모스열람실이 있을에도 불구하고 學部生이 자리잡고있어 조금만 늦게와도 빈 좌석이 없다」고 하면서, 「면학도 좋지만 지켜야할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이들 학생들은 그러면 作品을 체계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또는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할 것이냐고 문고자하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각자의 語學실력과취향에 따라, 중요작품이라고 알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先後가릴것 없이 읽으라고 할수밖에 없다.

이렇게 文學공부와 어학공부에서 학생들은 그러면 作品을 해가면서도 학생들에게는 한가닥 不安이 있는 것을 안다. 본래 英文科에 들어온 목적이 英語로써 社會進出의 도구로삼고자한 학생 중에는 小說이나 詩에서 배운 英語가 과연 實存意志의 숨결을 다룬 희극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앞에 人間이 패배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이니고 人間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자연을 정복하고, 애를 쓰면서 의식적으로 자기존대의 착각을 물리치고 종속적 자기본수를 감수하는 에지를 터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생쥐와 人間〉에서 作家로서의 力量과 地位를 굳힌 스타인백은 바로이어서 1939년 그의 불구의 명작인 The Grapes of Wrath〈忿怒는 葡萄처럼〉을 世上에 내놓음으로써 美國文學史上 영원한 地位를 다져잤다. 初版 50여만부가 순식간에 팔려나간 이 作品의 선풍적인 人氣는 마거리트·미첼의 Gone with the wind〈바람과함께 사라지다〉와 더불어 1930년대 美國出版界의 최대사건의 하나로 오늘날도 평가되고 있다. Alexander Cowie는 〈The Rise of American Novels〉에서 이 作品을 가리켜 兩次 世界大戰 사이에 나온 小說文學의 모든 가지있는 특징을 훌륭하고 힘있게 集大成해 놓은 최대의 결작이라고 평하고 있거니와 이 作品은 스타인백의 創作生活의 절정의 이루는 作品일뿐아니라 미국문학의 한지대에 끝을 맺어놓은 大作品에 틀림없다.

作家는 作中 主人公「조드네」이야기를 통해서 人間〈靈魂〉의 승리를 희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했었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偏見과 自尊感識이 協同을 막는 世界에서 協同은 오직 個人이 자진해서 자기네 특수權益을 도의적하고 共同의 目的을 도모해야만 實現된다는 것이 이作品속의 主題가 되어있다. 따라서 이 作品속에는 하나의 世界政府를 모색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안고 있거가지의 至難한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 主題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自發的인 협동을 강조한 페미니즈의 各種 擁益團體의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

超越論者들은 文明社會의 제도에 오염 부패되지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인간은 옳은일을하게 마련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忿怒는 葡萄처럼〉은 소설이지 논문은 아니다. 이것은 藝術작품이지 社會學 혹은 哲學책이 아닌 것이다. 예술가로서의 스타인백은 인간형동을 그대로 그려내는데 관심했었지 인간행동의 規範을 세우려한것이 아니였다. 사람이 본연의 자세를 잘 길러나가는것을 제시했을 따름이지 어떤 法則·規範을 강조내지는 역설한 目的의소설로 전락하지 않았던것이 이작품에 영원한 예술성을 찾는 生命力이기도 한것이다.

Steinbeck 은 그의 위대한 선배인 Hawthorne과 마찬가지로 역시 「영속적이고 실속있는 개혁은 오직 개개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투철한 신념밑이 現代의 대숙적인 物質社會에서 상실되어가는人間」을 구제하고 회복하는 길이라는것」을 그의 수많은작품을 통해서 특히 「The Grapes of wrath」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량식품 근절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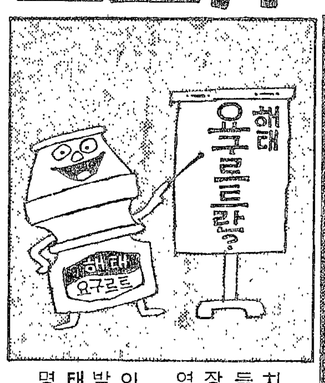
해태가 만드는 새로운 유산균 발효유 깐난 요구르트

해태 요구르트 발효유

100ml 커다란 요구르트 해태 요구르트

해태유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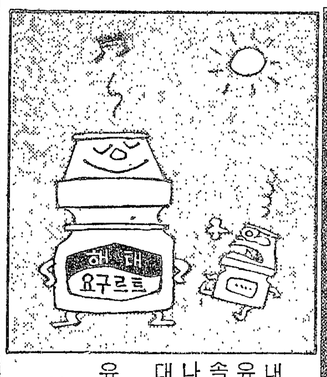
① 해태 요구르트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소련의 메치니코프씨는 불가리아 지방의 주민들이 장수하는 비결은 요구르트를 장기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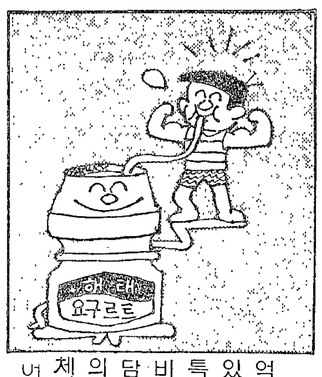
요구르트는 유산균 발효유중 최고의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유산균 발효유의 대명사 입니다. 따라서 해태 요구르트는 그이름 자체를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수 요구르트입니다.

② 많이 마실수록 좋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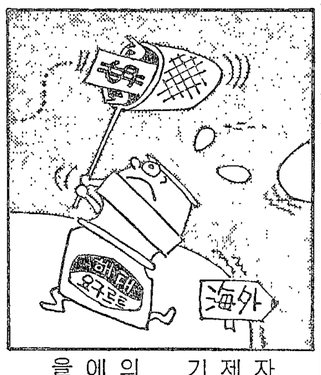
요구르트는 정장 작용을 위한 장내의 세균형성에 필요한 많은량의 유산균 투입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적 이어야 하므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 그 마시는 절대량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읍니다. 국내외 권위있는 영양학자들의 권유에 의하면, 오히려 많이 마실수록 있읍니다.

③ 어린이건강에 아주 좋읍니다



요구르트 100㎖ 한병에는 수십억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내에서 유산균이 번식할 때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을 생산하며 위산이나 담즙에 죽지않고 살아있어 음식물의 소화 흡수 능력을 도와주며 인체내 나쁜균의 번식을 막아줌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④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제조 개발



해태 요구르트는 순수한 우리의 자본과 기술진에 의해 연구 개발된 제품으로써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해태가 제조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로부터 우리의 기술진에 의해 생산됨으로 $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게 되었읍니다.

秩序의 美

—祝祭에 바란다—

李舜英

入學式과 開講의 3月달은 新人生을 歡迎하기 위한 모임의 壁報로부터 시작 되였고 대학가의 술집과 식당들은 그들로바쁘게 보낸 달이었다。 이 벼루는 歡迎의 意味로 그들을 맞아 식구들 보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인것이다。

人間萬事에는 너와 내가 共存할 속에서 肯定과 또는 부정의 의미와 그들의 價値를 찾아 論할수 있는 것이라 볼때 좋은것, 即 秩序라는 아름다움은 共存과 그 共存으로서의 人間生活을 營爲함에 있어 必要不可缺한 國體의 전제로서 가능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人間으로서 地球上에 존재하며 國家라는 한 民族의 이름아래서, 大學이라는 一般共同目的의 國體에 구성원의 文化發展에 貢獻하는 成果의 公開라하겠다。 專門的 學術을 訓練함에 있어 眞理를 眞理로서 敎授하는 學者的 良心과 學問的 眞實을 必要하며, 知識의 蹊徑가 必要하며, 努力의 德目的인 專門家로서 만이 아니라 독립은 人間敎育 即 人間으로서의 德性을 지닌 全人的 人間敎育을 成立시키는 必要不可缺한 要素라 첫째, 專門的인 學術訓練이며 둘째, 全人의 敎育이며 세째, 硏究와 그 目的이어야 할것이다。 그 目的은 단순한 근원을 超越한 意味있는 努力이어야할 것이다。

大學의 本質을 認識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苦惱하다。

바르게, 우리는 대학의 構成員으로 實在하면서도 대학의 이념이나 共同目的 또는 그 使命을 認識하려는 노력에는 가장 먼저 認識하여야 할 사실을 알지못하면서도 서로가 當然한 疎忽히 해서는 안될것이며, 硏究, 그 自體는 創造와 未知의 眞理를 開拓함을 目的함으로 부터의 어떠한 制約 外部의 束縛이 없이 獨立됨이 絶對的인 要件이다。

大學의 本質과 理念을 바로 인식하고 해할때 象牙塔의 生命과 權威는 영속될 것이다。

학생, 교수, 경영자, 모두는 立場의 立脚한 자, 기개성의 성장을 追求함과 완성된 個性의 인체 조화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상호간의 사랑과 협力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祝祭의 5月이는 앞에 다가왔다。 知性과 浪漫의 결정은 大學生活에 있다。 갈고 닦은 智慧와 젊음과 冒險의 熱氣를 발표하고 교환하며 자랑하는 遊戲를 위한 행사, 祝祭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眞情한 멋과 아름다움을 創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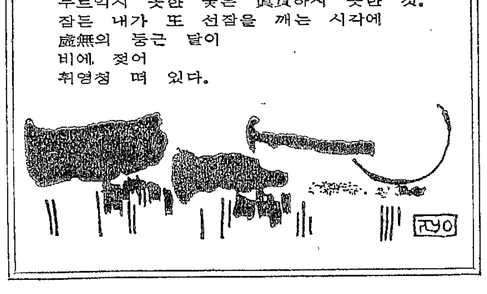
대학의 理想과 使命이 곧 그 구성원의 理想이며 使命이라 생각할때야 흘러들과 멋에 취할 수 있는 사명과 아상을 바로 인식하는 智慧와 知性이 情과 함께 조화되어 祝祭의 秩序를 이룰때 그 질서의 美는 오직 대학과 大學人으로서만이 가질수 있고 누릴 수 있는 孤高한 아름다움이다。 〈法政大·華行科〉

갈고 닦은 智慧를, 젊음과 패기를 發表하고 교환하며 자랑하는 祝祭가 되기를

靜物

崔淳烈 <同門·詩人>

크레파스로 그린
밤가진 피아노가 8분음표로 앉아있는
三十年來 古風의 이층 다다미방에서
深思熟考의 고개를 기울인
메마른 소파의 판자노리에
斜線으로 비가 온다。
버림받은 그림자가
四方十里에
추녀 끝을 찾아 헤맨다。
호박 잎사귀에 내린 빗방울이
傷心하여
새로 돋아나는 솜털을 적시며 울고있다。
시든 꽃송이가 화병을 떠난다
부러진 건반에 창백한 손이 내린다。
한 小節도 찾아낼 수 없는
無氣力의 곰
손끝에 물어나는 灰色
마른 꽃송이가 되돌아 온다。
무르익지 못한 꽃은 眞實하지 못한 것。
잠든 내가 또 선잠을 깨는 시각에
虛無의 둥근 달이
비에 젖어
취영청 떠 있다。



論壇

隨筆

兄에게

李恩心

兄, 볼도 이제 막 지나가는 끝마무리。 짧은봄 외 빛 속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얻어 가고있읍니까?

연 草綠의 변치않는 驚異와 놀푸른 하늘 한조각 빛 사이에서…。

가만히 잔디에 누우면 밝아오는 世界— 봄 바탕, 봄 하늘, 봄의 精氣 그리고 봄 푸른 빛—멀리 우리가 두고 온 幼年이 펼쳐지는가 하면 멀리 우리가 가야할 죽음이 가벼운 한걸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하나 하나 껍질을벗고 뛰어 나와 우리가되고자 합니다。

兄, 조용히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셨읍니까? 그들의 틀리지않는 갖은 속삭임의 世界를 위해 작은 旅行을해 보셨읍니까? 아무 말없이 단지 봄을 맞기위해 우리는 그들의 낮은 音氣, 저는 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兄을 尊敬하지않을수없읍니다。

그러나 兄,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自身입니다。 눈을 돌리고 먼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淨化된 정음을 보십시오。 숨겨진 우리의 것, 그들을 위하여 잠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兄, 지금은 빛이 온통 世界속에 理性으로 느끼지는 瞬間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精神的인 物質, 빛은 우리의 몸전체를 통하여 꿰뚫고 있읍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한人間의 內部에서 우리를占有할 수있는 유일의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처럼 온 世界에 충만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것 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에 대해 疏外感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게으름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兄, 빛은 전혀 우리들을 보고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要求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찾아야 할 따름。 그러나빛은 우리들 모르게 우리들 모르게 우리들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있읍니다。 잊어서는 안될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빛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사방에 펼쳐 存在하고 있다는것입니다。 해와 달빛은 고독하듯이 또는 우리들 모두 하나 하나가 고독하듯이…까닭으로 빛은 고독의 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독속에서 透明히 밝아오는 빛, 그 또한 빛의陽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알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알기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고독해 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합니다。

兄,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우선 빛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빛을 맞기위해 이 세상에 投身할수 있는 勇氣, 저는 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兄을 尊敬하지않을수없읍니다。

그러나 兄,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自身입니다。 눈을 돌리고 먼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淨化된 정음을 보십시오。 숨겨진 우리의 것, 그들을 위하여 잠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兄, 兄은 머리를 깎고 절을 잡재우고 祖國과 民族에 대한 사명감으로 깊은 苦惱속을 헤메이고 있읍니다。 兄은 휴식없는 자신과의 갈등에서 채찍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은아닙니까? 우리의 生命이자 根源인 빛을… 時代의 촛점이되고 기위해 自身의 良心과싸우는 兄, 兄의 이름은高貴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現實的인 문제에 投身할수 있는 勇氣, 저는 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兄을 尊敬하지않을수없읍니다。

그들의 價値를 찾아 論할수 있는 것이라 볼때 좋은것, 即 秩序라는 아름다움은 共存과 그 共存으로서의 人間生活을 營爲함에 있어 必要不可缺한 國體의 전제로서 가능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人間으로서 地球上에 존재하며國家라는 한 民族의 이름아래서, 大學이라는 一般共同目的의 國體에구성원의 文化發展에 貢獻하는 成果의 公開라하겠다。 專門的 學術을 訓練함에있어 眞理를 眞理로서 敎授하는 學者的 良心과學問的 眞實을 必要하며, 知識의 蹊徑가 必要하며, 努力의 德目的인 專門家로서 만이 아니라 독립은 人間敎育 即 人間으로서의 德性을 지닌 全人的 人間敎育을

巨富가 되는길

<나폴레온 힐 原著·박병진編譯·育文社·값 900원>

당신의 富를 100% 보증한다는 이 책에 우선 호기심이 간다。 이 책의 각장에는 수백명의 부호들의 <거부가 된 비결>이 방라되어 있다。

돈 버는 비결을 몰라 일생동안 실패자 노릇을 하는 세상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압록강은 흐른다

<李미륵著·田悳麟譯·汎友社刊·값750원>

李미륵박사의 <압록강은흐른다>는 1959년에 당시 여원사 출판부에서 초판이나왔었다。 역자 田悳麟이 아직 독일에 있었을 때 李박사의 묘에 참배하다가 이책 <압록강은 흐른다>를 아직 모르고있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읽히고싶은 마음으로 번역한 것이다。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으면 李미륵씨가 만인의사랑을 안받을수 없었던 분이었음을 절감하게된다。 이제 저자도, 역자도故人이 되었고, 이책이 절판된지십여년, 모든이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다시 펴낸 것이라고한다。

사랑과 슬기

<김지용著·형설출판사·값 2,000원>

지금까지의 사학가들은 문화창조의 주인공이 마치 남성위주였던것처럼 기록했다。 겉으로 표현된 창조의 주인공은 남성인것같지만 속에서 힘을 다한 여성이 있음을 간혹 망각하는 수가 있었다。

여기에 수록된 한국고녀 여성들의 이야기는 앞뒤에 숨어서 그들이 얼마나 힘차게 사랑했고 보람된 슬기를 발현했는가를 엿보게하는 일부분이다。

이야기

<李미륵著·鄭奎和譯·汎友社刊·값540원>

李미륵의 遺稿등 38편의 단편이실린 이책에서 미륵이 평소에 시도했던 문학활동의 일부분, 즉 한국 민속문학은 독일땅에 심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쉽게 엿볼수가 있다。 이글들의 일부는 저자가 타계하기전 독일의 신문 또는 잡지에 발표되었던 것도 있고, 다른 부분들은 역자에 의하여 새로 찾아진 작품 들이다。

<도서관제공>

兄, 빛은 언제나처럼 온 世界에 충만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자로 存在할 것입니다。

文化短信

敎育問題심포지움

大韓敎育聯合會 (회장=李瑄根박사)에서는 「우리는 青少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라는 主題로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敎育會館 8층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갖는다。

주제강연이 끝난 후에는 토의가 있게 되는데 本校 교양학부장 李丙燾교수가 여기 참가한다。

상자속의사랑야기

空間劇場開館紀念公演 「솔스 페이먼」作 「상자속의 사랑이야기」가 오는 4월부터 空間劇場에서 17일까지 비원옆 7시반부터 하오 4시반까지 연속공연한다。

大學生英語웅변

中央大學校 英字新聞中央헤럴드사에서는 전국남녀대학생 영어웅변대회를 갖는다。

주제는 자유로 7분짜리 원고를 5월23일까지 서울 관악구 흑석동 221 中央大 中央헤럴드사로 보내면 된다。

웅고집傳

본교 演劇科에서는 相烈作 「웅고집전」을 제 1백48회 實習公演과 序幕으로 오는 6, 7양일 간에 (오후4時, 7時) 결쳐 중강당에서 公演한다。

典型的인 고전소설 「웅고집전」에서 이를을 딴 이 극은 76년 度 文藝振興院 주최 創作戲曲부분당선작으로 새 마을운동을 선봉으로한 家族計劃을 주제로 다루고있다。

男 姜女卑 思想에 박힌 웅고집노인에게는 뿌리 깊은 대중가요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것처럼 가장 솔직히 大衆의 生活感情을 담고있어야 할 노래。 高麗時代의 俗謠만 해도 그렇다。 그 당시의 生活감정을 노골적으로 담고있읍니다。 만약 우리가 빛에 대해 疏外感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게으름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世界的 추세와는 달리 변화의 폭이 좁다。 10여년 전에는 유행했던 「동백아가씨」가 아직도 그 가사와 曲調가 함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빙색調의 노래가 우리 고유의 것인 것인지 헷갈린다。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